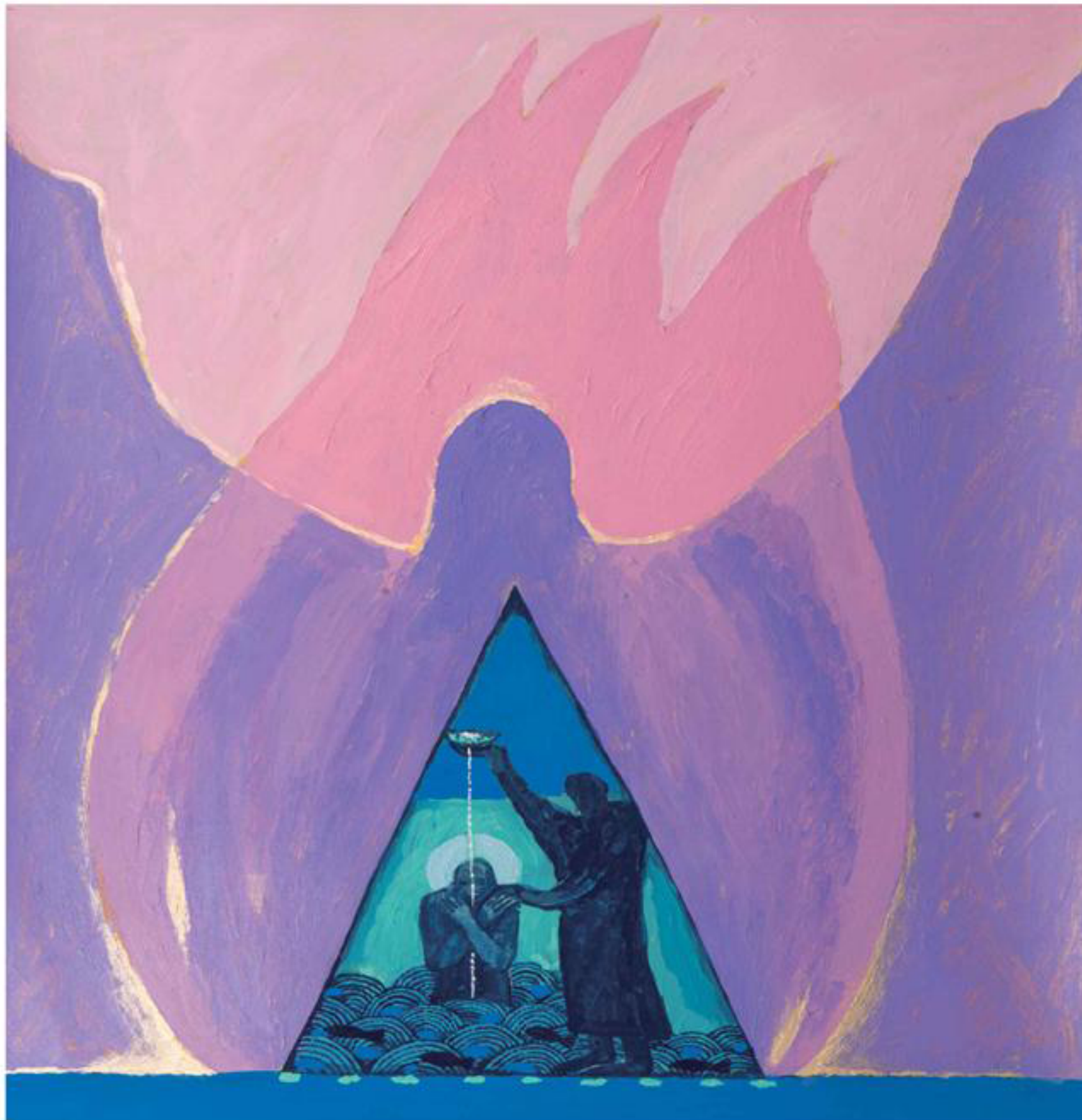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12월 12일



복음 나누기

대림 제3주일 (12월 12일)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18)



성령과 불의 세례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음에 오실 분은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겸허하게 고백한 요한의 겸손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깃들 때 비로소 드러나는 자선의 행위를 이제 행할 때입니다.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10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13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14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2)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루카 3,18)

하느님의 말씀에 맞들인 순간이나 성경말씀 중 기억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장미주일로 지내며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권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삶을 전해주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소공동체 여러분! '참된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 줍니다.

그는 광야에서 금욕생활을 하며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분명히 아셨고, 때가 되어 하느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부르셨을 때 단순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루카3,16)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우리 모두가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께 희망을 두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단순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항상 기도 드립니다.







## 복음 나누기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